



박순호 교수  
원광대 국어교육과



▷1988년 제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재연된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 박순호 교수 스스로 대표적으로 꼽는 이 공연은 그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완주 봉서사 영산작법 대령상

"여 여허-여허무 상사뉘-여 모순을 갈라  
쥬고 거듬거듬 심어보세."  
구성된 유자배기판소리 계면조 장단이 울  
려 퍼지면 어깨춤이 절로 난다. 힘든 모내기  
일도 술술 넘어간다.  
지난 10월 충주에서 열린 제43회 한국민속  
예술축제에서 순창 '금과 들소리'를 재현한  
김영조(80) 씨를 비롯한 80여명의 전북 대표  
들은, '대령상'이 확정되자 참가자 모두 지  
도교수인 박순호 교수(60, 민속학자, 원광대  
국어교육과)를 얼싸안았다.  
"아이구, 저번에 내가 실은 소리하고 연습  
빠진 거 미안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107세 할머니의 노래 한 자락을 듣기 위해

며칠씩 집에 머물며 굿을 일을 했던 기억, 원  
손 올리라고 하면 오른손 들면, 평균연령 70세  
의 '학생'들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떠올라  
박 교수의 코골도 빙해진다.  
1978년 위도 띠벳놀이, 82년 남원 심동굿놀이,  
85년 익산 우도농악, 88년 완주 봉서사 영  
산작법을 한국민속예술축제 대령상 수상작  
으로 일컫던 박순호 교수, 박교수가 우리 민  
속예술 찾기에 나선지 40년이 흘렀다. 그는 휴  
일이나 방학 때면 카메라에 녹음기, 캠코더까  
지 짙어지고 산골 마을로 답사를 떠난다. 나이  
지긋한 분들의 소리 한 자락, 이야기 한 마디  
라도 더 듣고 채록해 두기 위해서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기약 없이 떠돌다 보면  
바로 이것'이다 실은 농악이나 민요, 민속놀이  
를 발견하게 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과  
정에서 노랫말이 뒤바뀌거나 중간 구절이 빠

민속예술 복원 40년

져 있는 경우는 동네 주민들을 불러 모아 노래  
를 다시 부르고 수십 수백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노랫말을 되살리려 공연 성격에 맞게 구성한  
다. 40분 정도로 구성된 공연물도 1주일에 2-3  
회씩 연습을 하고 대회가 가까워 오면 '합숙훈  
련'도 마다하지 않는다. 외부와의 연락마저 모  
두 끊고 연습에 매진하는 박 교수 팀이 역대 최  
다수상을 일구어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이다. 그가 말하는 '우승 노하우' 세 가지.

"농악이든 민속놀이든 우선 원형이 70% 이  
상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구'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두번  
째는 단일부류만으로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  
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전해  
오고 또 그들이 보존해 나가야 하는 문화 아  
닙니까. 쉽게 '공연'을 하려고 다른 지방 사람  
이나 학생들을 동원한다면 의외가 반감되겠  
지요. 세번째로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신명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연출력이 뒷  
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민속예술 되살려야

하지만 수상보다 더 큰 문제는 발굴된 문화  
의 보존. 대령상을 받고도 전수자가 죽고 나  
면 명맥이 끊겨 버리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 보존  
회를 결성해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후계자 양  
성에 힘쓰도록 한다. 그가 발굴한 위도 띠벳놀  
이와 익산 우도농악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  
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꾸 줄어들  
는 것이 안타깝다. 농요보다 가요가, 민속놀이  
보다 컴퓨터 게임이 더 익숙해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민속예술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 다녀보면 '손으로 모심고 호미로 논

때론 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농요는 무슨' 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디다. 농요의 가능 자  
체가 상실된 것이죠. 하지만 몇 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민속놀이나 농요 속에는 우리네 역사  
가,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지 않습  
니까, 이것을 되살려 전승시켜보자는 것이죠."

불교대 설립, 7년간 확장

어려운 소박해 보이고 험악한 개인이 감  
당하기 벅차 보이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박 교  
수는 40여 년간 한뎛잠을 자고 마음의 고향을 일  
도 자정해 가며 우리 노래와 이야기를 모아왔  
다. '할플 때면 의지가 되고 화가 날 때면 마음  
을 가라앉힐 수 있고 자만심이 들면 고개 속일  
수 있게 해 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박  
교수의 불교사랑 또한 남다르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이었던 박 교수는  
지난 1997년 불교대학 설립에 앞장섰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확장으로서 불자 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봉서사 스님과 신도들  
이 한마음으로 재현해 낸 '완주 봉서사 영산작  
법(1988)'은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다.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하는 불자들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책으로 펴내는 작업도 잊지 않았  
다. <전국구비문화대계>, <전북예술축제>를  
낸 것을 비롯해 2000여 권의 자료 중 102권을  
영인본으로 펴냈다. 이 과정에서 판소의 일두  
마당 중 구원이 끊겼던 '무속이 타령' 사실을  
발견해 주목 받기도 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다면 중간에 몇 번  
이고 그만뒀을 겁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순간  
까지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데 힘  
이 되고 싶습니다."

글=여수형 기자 snooky@buddhania.com  
사진=임민수 기자

당찬 신세대... 단편영화 '별주부전'  
'방생' 소재 인간욕망 그려

비구니 스님이 정터에 간다면?  
동국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학생들이 만드는 25  
분 짜리 단편 영화 '별주부전'은 '방생'이라는 소재적 특성 말고도 '특  
별한' 것이 있다고 사나리오와 공동 연출을 맡은 오지혜(26)씨는 강조  
했다.  
"기존 단편 영화들은 종교를 다룰 때 너무 무겁고 엄숙하게만 접근한  
것 같아요. 젊은 비구니 스님의 최종우울 에피소드를 통해 윤회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요."  
즐거리는 대강 이렇다. 연화라는 젊은 비구니 스님은 방생 법회에 출  
자리를 사서 정터를 빠져나오다가 꼬마의 황금잉어사탕을 부수게 된다.  
돈이 없는 스님은 아바위판에 끼어틀게 되고, 그 와중에 허리가 좋지 않  
은 장동행이 김씨가 자라가 든 한지박을 안고 가 버린다. 자라가 꼭 필요  
한 스님과 김씨는 자라 경주를 벌여 주인을 가리게 되고  
정터라는 소재와 빠른 전개 탓에 '코믹 액션 느낌이 나는 드라마' 다  
여기에는 23살 포러와 다름 게 없어 보이는 젊은 비구니 스님 연화의 모

내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 계획

습도 한 톨 거른다. 스님은 정터에서 머리핀 가게를 거울거리다 스스로  
멋쩍어 하기도 하고, 꼬마의 황금잉어사탕을 박살내 당황해 어쩔 줄 몰  
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씨는 "불교적 소재만을 차용한 가벼운 영화가 절대 아님"  
을 강조한다.  
"자라"는 방생 법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자를 보  
신을 위해서도 많이 찾았어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욕망이라고 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직하게 욕망을  
찾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평범하고 평등한 인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  
게 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해 주면서도 본인의 모습을 잃  
지 않는 종교, 그런 것을 담고 싶어요." 영화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  
을 얻고 행복해 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 영화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영화가  
완성되면 내년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외국의 국  
제영화제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소재로서 불교가 갖는 가능성이 큰데도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오씨는 "실용이나 감  
동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방생'을 소재로 단편 영화를 찍고 있는 동국대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  
제작학과 '별주부전' 제작팀.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훈광(촬영감독), 오  
지혜(사나리오), 조성범(감독)씨. 사진=고영배 기자

**시멘트 법당 한국불교건축공예는 기초부터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건축공예로 사찰 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될 사찰  
홍내는 필수 있어도  
"금"과"은"의 가치는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안내

- 건축사업부  
건축, 설계, 시공, 법당, 요사채, 남불당 등
- 의식구사업부  
반, 연
- 해외사업부  
중국, 미얀마, 베트남 진출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양우2동 563-12  
대표전화 02)494-4890-1

서울 법당54동(2002년 8월 완공)	경기 법당30동 오시30동(2002년 10월 완공)	대구 법당74동(2002년 10월 15일 완공)	광동 법당40동(2003년 5월 완공 예정)
서울 법당45동 오시220동(2002년 12월 완공)	울산 법당140동 지동 140동(2002년 7월 완공)	전북 법당30동 나동진 20동(2002년 11월 완공)	전북 법당30동 오시30동(2002년 11월 완공)
포항 법당35동(2002년 10월 완공)	경기 법당15동 오시15동(2002년 11월 완공)	대구 법당 50동 지동30동(2002년 11월 완공)	전주 영각전54동(2002년 10월 완공)